

메시지 4  
자아에 대한 이상

성경: 마 16:21-26, 눅 9:23-25, 롬 6:6, 8:13, 갈 2:20, 엡 3:17상

I. 우리는 자아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. 이럴 때 자아가 폭로되고 부인되며, 우리는 하나님과 몸에게서 독립되는 것을 미워하게 된다 — 마 16:21-26, 요 15:4-5, 몬 8-14.

A. 자아는 사람의 사상이나 의견이 강조된 혼 생명이다 — 마 16:23-25.

1.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서 세 용어는 서로 관련이 있는데, 그것은 ‘생각’과 ‘자기’와 ‘혼 생명’이다.
2. 우리의 생각은 우리 자아의 표현이고, 우리의 자아는 우리 혼 생명의 체현이다 — 마 16:23-25.
3. 우리의 혼 생명은 우리의 자아에 의해 체현되고 살아 나타나며,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사고와 관념과 의견을 통해 표현된다 — 마 16:22-23.

B. 자아는 사탄의 체현이다. 자아는 혼 안에 있는 사탄의 본질이며, 혼을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게 만들어 혼 스스로의 의견과 뜻을 표현하게 한다 — 마 16:23.

1. 자아의 기원은 사탄이 자신의 사상을 사람의 생각 속에 주입한 것이었다 — 창 3:1-6.
2. 사탄에 속한 무언가가 혼에 더해졌을 때 혼이 자아가 되었다. 혼에 더해진 것은 사탄의 사상 혹은 사탄의 생각이었다 — 마 16:23, 고후 11:3.
3. 자아는 혼에 사탄적인 생각이 더해진 것이다 — 마 16:23, 25.

C. 우리가 자아에 대한 이상을 가진다면, 자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. 자아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독립을 선언한 혼이다 — 마 16:23, 눅 14:26, 욥 42:5-6.

1. 타락으로 인하여,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혼은 하나님에게서 독립을 선언하였다 — 창 3:1-6.
  - a. 사람은 사탄의 사고와 사상을 자신의 혼 안으로 받아들였고, 그 결과 혼은 하나님에게서 독립한 자아가 되었다.
  - b. 혼은 특별히 의견과 뜻에서 하나님에게서 독립적이다 — 마 16:22-23.
    - (1) 자아는 혼 안의 사탄에게 속한 것이 의견들을 통해 표현된 것이다 — 마 16:23.
    - (2)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독립적이기 때문에, 자아의 화신(化身)과 나타남인 의견들을 갖고 있다.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독립적일수록, 자아의 나타남인 의견들을 더 많이 갖는다.
2.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무언가를 할 때마다 자아 안에 있게 된다 — 마 16:22-23, 비교 빌 3:3.
3. 몸에게서 독립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는 것과 똑같다.

II. 몸에 대한 이상을 보지 못하게 하고 몸의 생활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곧 자아이다 — 골 1:18, 2:18-20, 23, 3:15.

A. 몸은 자아와 반대되고, 자아는 몸의 원수이다 — 마 16:18, 23.

B. 자아는 주님과 몸에게서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, 자아는 몸을 건축하는 데에 가장 큰 문젯거리이다 — 골 1:18, 2:1-19, 23.

1. 우리는 자아를 가질 때 몸을 갖지 못한다 — 마 16:24.
2. 우리는 몸을 가질 때 자아를 갖지 못한다 — 마 16:18, 엡 4:16.

- C.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몸과 동일시해야 한다.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, 우리가 사는 생활은 완전히 몸의 생활일 것이고, 주님은 그분의 몸의 표현을 얻으실 것이다 — 고전 12:27, 골 1:18, 3:15.
- D. 몸이 건축되기 위해서, 독립된 혼인 자아는 반드시 유죄 판결받고 부인되며 거절되고 버려져야 한다 — 마 16:18, 21-26, 눅 9:23-25.

### III.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고, 자신의 십자가를 지며, 주님을 따라야 한다 — 마 16:24.

- A. 어떤 사람이 자신을 지나치게 관심하는 것은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고, 언제나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에 대해 생각하며 자신을 중히 여기는 것이다 — 딤후 3:2.
- B.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에 대해 잊어버리고 우리의 혼 생명을 잃는 것이다. 혼 생명을 잃는 것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의 실재이다 — 마 16:26, 눅 9:24-25.
- C. 우리는 어떻게 자아를 부인하는지, 곧 어떻게 자아를 처리하는지를 알아야 한다.
  - 1.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계시를 받아야 한다 — 롬 6:6, 갈 2:20.
  - 2. 이러한 계시를 본 후,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.
  - 3.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.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의 정확한 의미이다 — 마 16:24.
    - a.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그 영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— 롬 8:13.
    - b. 우리가 그 영 안에서 살고 행할 때, 그 영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— 갈 5:16, 24-25, 롬 8:4, 13.
  - 4.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자아와 타고난 생명과 옛사람을 끝내기 위하여 우리를 죽이는 그리스도의 죽음 아래 머무는 것이다.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여,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주님,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 — 고전 15:45하, 6:17, 갈 5:25.

### IV. 우리가 한 새사람의 생활인 교회생활을 위해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— 갈 2:20, 엡 2:15, 4:24, 3:17상, 골 3:10-11.

- A. 한 새사람 안에는 오직 한 인격, 곧 그리스도만 계신다 — 갈 2:20, 엡 3:17상.
- B. 우리의 영이 속사람이고 이 속사람의 인격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— 롬 8:16, 엡 3:17상.
  - 1.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자 한다면, 우리의 영이 단순히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— 엡 1:17, 3:16-17상.
  - 2. 우리는 우리의 자아 곧 우리 자신의 인격을 부인하고, 우리의 영 곧 우리의 새 인격에 의해 살아야 한다 — 마 16:24, 롬 8:4, 엡 3:17상.
- C. 이 새사람의 생활인 교회생활을 위해서,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옛 인격을 거절하고 우리의 새 인격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야 한다 — 눅 9:23-25, 롬 6:6, 갈 2:20.
- D. 우리에게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넘겨 드리고 우리의 인격을 그분께 굴복시키는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하다. 이럴 때 그분은 우리의 인격이 되실 수 있다. 우리의 헌신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이다 — 롬 12:2, 14:7-8, 엡 3:17상, 고후 5:15.